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개관

- 국내 최대 아트레지던시 탄생

작성자 : 이천우 (hdib@hyundaiilbo.com)

작성일 : 2009-10-30



국내외 미술작가들의 창작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게 될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 레지던시가 경기도에서 탄생됐다.

경기문화재단은 29일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옛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새롭게 리모델링해 부지면적 54,545㎡, 건물면적 16,225㎡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 레지던시인 경기창작센터를 개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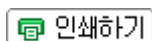
경기문화재단은 우선 올해 기존의 직업전문학교 7개 동 중 3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치고 컨버전스동(사무실, 회의실, 강의실, 전시장, 스튜디오, 커뮤니티룸)과 레지던스 I동(숙소(직원, 작가), 멘토 게스트룸, 스튜디오), 작품창고 I동(작품창고)을 새롭게 꾸였다.

2010년에는 나머지 4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벌일 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대규모 시설을 갖춘 세계적이면서도 지역적으로 특화된 '아트레지던시' 기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경기창작센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시프로그램, 지역협력 프로그램, 국제교류 프로그램,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 작품창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개관 당일부터 4일간 권미원 교수, 우테 메타 바우어 전 카셀도큐멘타 공동 큐레이터, 안빌렘 슈로퍼 라익스아카데미 관장 등 미술계 주요 인사 대거 참여하는 2009 레즈아티스 컨퍼런스를 진행, 국내 대표 아트레지던시로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수원/이천우 기자 lcw@hyundaiilbo.com

 인쇄하기

 달기